

세계 여러 나라의
차문화1.



한서대학교
서은주



한국의 차 문화

일반적으로 『삼국사기(三國史記)』 「흥덕왕조(興德王條)」의 기록을 최초의 茶문화형성으로 보고 있다.

신라 흥덕왕 3년(AD828)에 唐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대림이 돌아오는 길에 茶 종자를 가져와서
왕명으로 이를 지리산에 심었다

茶마시는 풍속은 이미 선덕왕(AD632~647)때 부터 있었다.

인도에서 온 허황옥의 추정하는 경로도



고 려 시 대

모든 백성들의 차를 마시는 생활을 할 정도로
대중화가 이루어 졌다.

우리 조상들은 머리가 아프거나 배탈이 났을 때
차를 약으로 마셨다.

문인(文人)들은 잡념을 없애주어 학문연마와
정신수양에 적합.

다선일미(茶禪一味), 점다삼매(點茶三昧)

『高麗史』

왕은 상(喪)을 당한 신하에게는 **부의품**으로 공로를 세운 신하에게 주는 상급으로 **茶**를 **하사**했다.

고려왕실 행사 때 태후 책봉, 왕세자 책봉, 왕자 공주 책봉, 연등회(燃燈會), 팔관회(八關會)등 의식 때 차를 올리는 의례를 했다.

중형주대의(重刑奏對儀) 때에도 차를 올리는 의례를 하였고 사헌부에서는 매일 **다시**(茶時)를 행하여 차를 마시며 국정을 의논했다.

진 다 의 식(進 茶 儀 式)

고려시대에는 차 의례를 일반적으로 '진다(進茶)'라 한다.

다방(茶房) : 차를 관장하는 관청으로 조정에서 궁중의 여러가지 행사에서 차를 준비하고 베푸는 차일을 맡아 진행하는 곳.

다군사 (茶軍士) : 궁중 밖에서 왕족에게 차를 올리거나 준비하는 일을 위해 다구와 짐을 나르는 군인.

다방군사- 행노(行爐.휴대용 화로)군사

다담(茶擔 다구를 포함한 차 짐)군

고려시대의 다방과 다군사제도에서 당시 차문화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 쇠 퇴 와 중 흥

- (1) 왕실의 과다한 의례로 많은 인력과 경비가 소요되고 의식에 참여하는 수만 명의 승려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기 위해 백성들은 고통을 겪어야 했다.
- (2) '다소(茶所)' 라 해서 차나무가 자라는 지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 주민들이 차를 재배하고 제다하여 국가에 바치는 세금으로 찻세를 내게 했다.
-

조 선 시 대

고려시대 茶문화를 이어받아 궁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차를 올리는 주다례(晝茶禮)와 별다례(別茶禮)가 있었으나 조선중기로 접어들면서 차문화는 쇠퇴해져간다.

불교가 배척되면서 승려들의 생활이 피폐해지자 茶를 마시는 풍속도 줄어든다.

다모(茶母는 왕실에서 다례를 돕는 일을 하는 여성으로 차문화가 쇠퇴하면서 여자비밀형사의 임무를 맡게 된다. (종이나 식모들을 유인하여 정탐을 하고 수색도 했다)

2. 한 국 의 음 다 법

1) 문헌에 나타나는 음다법.

(1) 떡차 음다법 : 당나라 육우 『다경(茶經)』

만들어 놓은 차를 불에 구운 다음 맷돌로 갈아 가루
만들어서 이를 끓는 물에 넣고 다시 끓인 다음에
찻잔에 따라 마신다.

(2) 앞차 음다법

초의 『동다송(東茶頌)』

앞차는 떡차에 비해 만들기도 쉽고 마시는 방법도 간편하다.

끓는 물을 먼저 다관에 부어서 다관을 덥힌다.



다관이 덥혀지면 물을 따라 버리고 찻잎을 넣는다.



찻물이 우러나면 걸름망에 걸려서 마신다.

초의(草衣) 『다신전(茶神傳)』

투다법(投茶法)

차를 넣는 것을 투다라 하는데 상투, 중투, 하투가 있다.

상투법(上投法) - 먼저 물을 붓고 차를 나중에 넣는 법(여름)

중투법(中投法) - 물을 반쯤 붓고 차를 중간에 넣는 법
(봄, 가을)

하투법(下投法) - 차를 먼저 넣고 물을 나중에 넣는 법(겨울)
오늘날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하투법을 가장 많이 쓴다.

현대의 음다법

茶를 마시는 법:

- 1) 찻잔을 두 손으로 잡고 가슴높이로 들어 색을 감상한 후 가까이 가져와서 향을 맡고 천천히 3~4번에 나누어 마시면서 맛을 음미한다.

색(色) → 향(香) → 미(味)

『 다신전(茶神傳) 』

신(神) : 혼자마시는 것. 신령스럽고 그윽하여 이속(離俗) 한 경지.

승(勝) : 둘이 마시는 것. 좋은 정취와 한적한 경지.

취(趣) : 셋이 마시는 것. 취미적이고 즐겁고 유쾌한 경지.

범(泛) : 오 룽명이 마시는 것. 평범하며 구속 받지 않는다.

시(施) : 7-8 명이 마시는 것. 시(施)란 음식을 나누어먹는 박애 (博愛) 정신을 의미

향(香)

진향(眞香) : 청량한 아침이슬을 담백 담은 싱그러움을 갖춘 향.

난향 (蘭香): 차를 만들 때 불에 거슬리지 않았을 때 나는 향.

청향(淸香): 설익지도 않고 맑은 향.

순향(純香): 겉과 속이 똑같은 순수한 향.

차를 마시는 중대한 이유

1. 건강에 이롭기 때문이다.
2. 사색의 공간을 넓혀주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준다.
3. 사람으로 하여금 예의롭게 해 주기 때문이다.

茶의 9가지 덕(德)

- 1 . 머리를 맑게 해 준다.
- 2 . 눈을 밝게 해 준다.
- 3 . 귀를 밝게 해 준다.
- 4 . 밥맛과 소화를 촉진시켜 준다.
- 5 . 술을 깨게 해 준다.
- 6 . 잠을 적게 해 준다.
- 7 . 갈증을 멈춰 준다.
- 8 . 피로를 풀어 준다.
- 9 . 추위나 더위를 막아 준다.

중국의 차문화

1) 육우(陸羽)의 『다경(茶經)』 「육지음(六之飲)」

“茶之爲飲, 發乎神農氏, 聞於魯周公(차지위음, 발호신농씨, 문어노주공)”

‘차를 음용하기 시작 한 것은 신농씨부터 시작하여
노나라 주공에 이르러 널리 알려졌다!’

신농씨 시대에 인류가 처음으로 차나무에 찻잎을 채취하여 음료로
마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神農食經》 “茶茗久服 令人有力悅志(도명구복 령인유력열지)”

‘차를 오래 마시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진다.’ 를 근거로 하고 있다.

『 다경(茶經) 』

『 다경(茶經) 』 당나라의 문인 육우(陸羽, 733~804년)가 쓴 다도(茶道) 최고의 고전. 3권. 760년경에 씌어졌다.

차의 제법, 끓이는법, 마시는 법, 기원, 산지, 다기(茶器)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중국 다예(茶藝)

中國은 대부분 명·청대의 茶 우리는 법을 따르고 있다.

당나라와 송나라 때에는 덩어리 차를 가루로 만들어서 솥
에

넣고 끓여(자다법 :煮茶法) 마셨거나 가루 (점다법:點茶法)
에 뜨거운 물을 부어 저어서 마셨다.

허나, 명나라 때부터 차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차의 종류가
변하자 차 마시는 방법도 따라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다관에 끓는 물을 부어서 차를 우리는 포다법(泡
茶法, 沖泡法충포법)이 행해지게 되었다.

3. 일본의 茶문화



茶의 일본 전파

- ▶ 엔리야꾸(延歷) 24년 (805년) 사이쵸(最澄)가 당나라에서 차 씨를 가지고 와서 오우미(近江)의 사가모토(阪本)에 심은 것이 최초라 알려져 있다.
- ▶ 육국사(六國史) 『일본후기(日本後記)』
'고우닌(弘仁) 6년 (815년) 4월에 사가천황이 오우미의 가라사끼에 갔을 때 대승도인 에이쥬우(永忠)가 손수 차를 달여 어전에 바쳤는데 - - - 차를 심어 매년 바치게 했다.'
- ▶ 『일본서기(日本書紀)』
'김메이천황 등 16명의 승려에게 불구(佛具)와 차를 일본에 보내왔다.'
- ▶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
'백제의 귀화승인 행기(行基, 668~749)가 차나무를 심었다.'

차의 일본 전래는 불교의 전래로 8세기경 나라(奈良)시대로
견당사(遣唐使)와 유학승(留學僧)이 당나라로부터
차를 가져온데서 비롯된다.

차 문화가 활성화 된 것은 가마쿠라시대 선승(禪僧) 에이사
이 (영서:榮西)가 1191년에 말차(抹茶-가루차)와 차 제조법
과 함께 차 묘목을 들여왔으며 차의 재배가 확산되면서 주
로

사찰에서 약용으로 쓰였던 차가 상류층은 물론 서민의 기호
품으로 번져나갔다.

(차문화의 이중구조-약용, 접대)

도다이지(東大寺) 『동대사요록(東大寺要錄)』

백제의 귀화 승인 행기(行基, 668~749)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차나무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 차문화가 일본 차문화 전파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센리큐 정신

‘여름에는 차실을 시원하게 하고
겨울엔 차실을 따뜻하게 하며 찻
물이 잘 끓게 연료를 넣고 차는 맛
있게 우려내는 것이야말로 차정신
의 비결”

다선일미(茶禪一味)사상

‘물을 길고, 땀감을 하고, 물을 끓
이고, 차를 다르고, 부처께 올리고,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이 마
시고, 삽화, 분향하는 것 모두가
불법을 수행하는 행위인 것’

1. 다도정신 : 화경청적(和敬淸寂)
2. 다도의 근본이념 :와비 (わび)



센리큐

**센 리큐(千利休, 1522~1591)는
일본다도를 정립한 사람.**

와비차(わび茶, 草庵の茶) 전통의 원조 (다조茶祖)

조화와 존경, 맑음과 부동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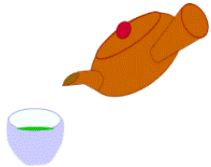
의미하는 화경청적(和敬清寂)의 정신을

강조하여 차마시는 것을 단순한 마시는 행위에서

일본을 대표하는 문화로서 다도를

만든 사람이다.

와 비 (わび)



센리큐는 간소하고 차분한
일본의 미의식인 와비(侘び)의 개념을 정립.

그의 와비(侘び)를 구현하기 위해 다도는 작은 족자 하나와
꽃 한 송이 꽂힌 꽃병 이외엔 아무 장식이 없는 작고 수수한
다다미 2장짜리 다실과 또한 소박하지만 기품 있는 다기들을
가지고 행하는 문화적 행위였다.

센리큐는 이러한 미의식 추구를 바탕으로 차 달이기의 의례
적인 측면, 다회의 진행순서, 회석요리 등을 양식화하여 다
도를 확립한다.

화경청적 (和敬清寂)

화(和) - 서로 사이 좋게 지내며 나아가 불심에 의하여 서로가 하나로 잘 어우러지는 상태. 서로 하나가 되는 상태. 각자가 개성을 지닌 사람과 동시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불심을 지니고 있음으로써 불일이여 (不二一如) 하는 상태가 곧 화(和)의 정신이다.

경(敬) - 상호 존중의 마음가짐을 말한다. 늘 서로 합장하는 자세로 서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다도에 임하는 정신이다.

청(淸) - 감각적 물질적인 청정무구(淸淨無垢)의 상태를 말한다.

적(寂) - 다실에서는 정적함을 유지하라는 의미이지만 공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마음의 정적까지를 말한다.

일본 고등학교 다도부



아키타의 고등학교에서 국제교류 온
한국학생들을 다도로 茶를 대접하고 있다.





작은 족자(가케지쿠)

출입문 니지리구치(躰口)



일본다실의 정원 로지에서 다실로 들어가는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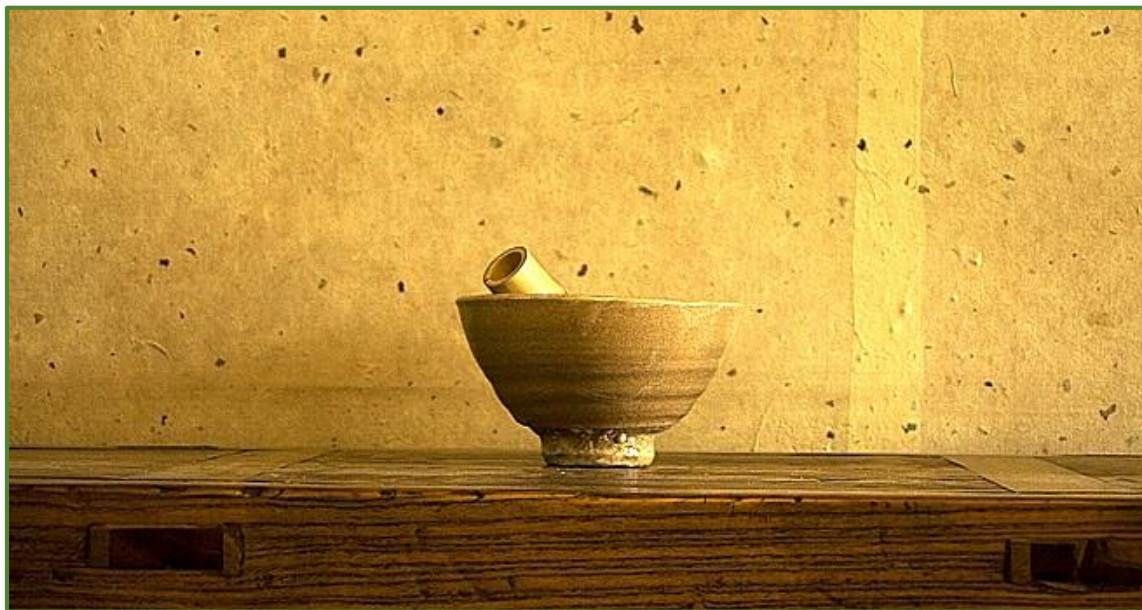
다실에 들어설 때는 고개를 숙여라.

다실에 들어설 때는 천하의 장군도 지체 높은
그 어떤 귀족도 고개를 숙이도록 만들었다.

'와비'의 정신이다.

(와비. 검소와 절약, 인고정신을 가리키는 말.)

다도(茶道)는 수련(修練)이다



목적도 중요하지만 수단 역시 중요하다는 사고, 역사, 전통, 예술까지의 다양한 행위까지를 담았으며 그러한 동작들의 확대를 통하여 인간의 수 없이 많은 행동에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다도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본의 다도이다.



- 각 나라의 차의 발음은 차의 고장 중국의 지방 사투리에서 유래.

차를 중국 광둥성 에서 '**CHA**'로,
북건성 에선 '**TAI**'로 부름.

- ▷ 광둥성 발음은 육로를 따라 이동
→ 한국과 일본에 영향
- ▷ 북건성 발음은 해상을 따라 이동
→ 영국과 독일에 영향



유럽은 17세기에 비로소 차가 전해짐.

시초 -당시 바다를 주름 잡던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상인들이 중국에서 차를 수입한 것.

-초기에 음료보단 만병통치약으로 소개



17세기 중엽 네덜란드에서 자란 찰스 2세와 포르투갈에서 온 캐더린 왕비가 영국 궁정에 차를 소개하면서 영국으로 전해짐

- 영국의 차 문화는 베드포드공작의 부인 안나에 의해 꽃피우게 됨.
오후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친구들을 초대해서 빵과 케익, 크래커등을 먹으며 홍차를 즐김.



- 귀족들 사이에서 대유행,
-오후의 티타임이 하루의 습관이 됨.

→오늘날 영국을 대표하는 차가 됨

1. 홍차(紅茶)의 역사(歷史)

1) 탄생(誕生)

유럽에는 17세기에 이르러 비로소 茶가 전해진다.
처음에는 일본(日本)의 녹차를 네덜란드에서 수입한 뒤
영국(英國)으로 재수출되었다.

그러나 일본의 쇄국정책으로 인해
중국에서 차를 수입하게 되면서
부터 영국의 특유한 홍차문화가
형성하게 된다.

(최초로 홍차를 만든 사람은 1610년 중국
북건성의 정산소종正山小種을 제조하는 차
생산자들이다.)



그 계기에는 찰스 2세와 캐서린이 가져 온 지참금인 茶, 설탕, 인도의 뭍바이, 중국과 일본의 茶 도구나 자기다완 등의 사용은 영국에 차가 크게 유행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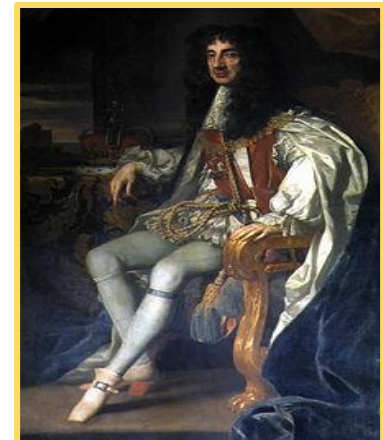
이 당시 영국에서의 차는 진귀하고 사치스러운 기호품이었는데 여기에 귀중품인 설탕을 첨가해 마신다는 것은 상류층

의 호화로운 차 취미에 적중해서 급속히 확산되었고 귀족뿐 아니라 서민들도 마시는 음료가 되었다.

캐서린 브라간자
(1638년~1705년)



영국의 찰스 2세
(1630년~1685년)



당시에는 남녀노소 모두가 알코올이 기호품이었다.

게다가 영국의 공장주들은 노동자들이 술을 마시고 곤드레가 되는 것보다는 차를 마시고 열심히 일하기를 원했다.

이리하여 영국에는 차가 독일의 맥주나 프랑스의 포도주와 같은 국민적인 음료가 되었으며 드디어 네덜란드를 누르고 영국(英國)의 동인도회사가 茶수입의 주도권을 잡게 되었다.



이 무렵에는 아직 홍차가 없었고 녹차에 우유나 설탕을 타서 마셨다. 이것은 영국이 북위 50도가 넘는 추운지대에 위치한 나라로 유축농업이 주라는 것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영국 사람들의 생활태도라 할 수 있다.



스콘(Scon, 영국식 빵)

2) 전쟁과 茶

미국독립전쟁과 아편전쟁

미국 독립전쟁

신대륙사람들은 영국인과 마찬가지로 차를 무척 좋아했다. 영국이 어려운 경제를 메꾸기 위하여 신대륙으로 가는 茶에 무거운 세금을 물리자 차 불매운동(不買運動)을 벌이고 차 상자를 바다에 집어 던졌으며 (보스톤 차 사건, 1773년) 급기야는 독립을 선언하였다.

보스톤 茶 사건



아편전쟁(阿片戰爭)

중국에서 차 수입을 의존하던 영국은 茶 이외에도 비단과 도자기를 수입(시누와즈리-chinoiserie 열풍)하고 있었으며 차 대금으로 해마다 너무 많은 은(銀)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지출되었다.

영어에서 자기를 'china' 라고 표현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청화백자



Mary Cassatt. Le the (Five O'Clock Tea), 1880, Oil on canvas, 64.7 x 92.7 cm, Museum of Fine Arts, Boston

영국은 생각 끝에 인도에서 아편(阿片)을 싸게 재배해서 중국에 몰래 팔기 시작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아편 중독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오자 아편을 금지했고 대대적인 아편 몰수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 사건을 핑계로 영국은 아편전쟁(1840년)을 일으키게 된다.



아편전쟁

3) 영국(英國)에서 발전하는 차 문화

애프터눈 티 (Afternoon tea)

차가 들어오기 전에는 영국인들은 하루에 아침과 저녁 두 끼만을 먹었다.

그런데 베드포드 7대 공작부인 안나 마리아가 공복(空腹)을 참지 못하고 오후 5시 경에 차와 케이크, 과자 등 가벼운 간식을 들기 시작(始作)하면서 '오후의 홍차'의 유래가 된 것이다.



템즈강변에서 '오후의 홍차'

샌 드 위 치

샌드위치 백작이 두 빵 조각 사이에 다른 것을 끼워서 먹는 방법을 발명(發明)했으며 이리하여 오후(午後)에 차를 마시면서 샌드위치를 먹는 관습이 생겼으며 생활 속에 미(美)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사교적인 분위기로 발전하였다.



하이 티 (High tea)

대부분의 노동계층의 가정에서는 오후에 따로 시간을 내어 차 마시는 시간을 낼 수가 없었기에 노동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6시경에 고기, 감자, 치즈 등 요리를 먹으면서 차를 마시는 것에서 유래되었다.

(차의 따뜻함과 향기, 그리고 차의 풍미로 신기하리만큼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었다.)



2차 세계대전 때에도 영국군인은 tea time을 가졌다.(기능성 때문)



바게트와 커피

러시아의 홍차문화

영국과 함께 홍차를 애음한 또 하나의 나라가
홍차 대국 러시아 이다.

차는 영국과 러시아, 즉 유럽대륙 동(東)과 서(西)의
양 가장자리에서 꽃 피운 셈이다.

17세기 후반 무렵 몽고의 기마군단(騎馬軍團)이나
이라크, 터키에 들어 간 차가 아라비아대상(大商)들에 의
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러시아로 차가
전파된 경로라 할 수 있다.

러시아 茶문화의 상징은 사모바르(samovar).

**이는 티벳 지방의 찻주전자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작은 난로 위에 물통과 찻주전자가 올라가 있는
모양이며 우아한 장식이 많다.**

**춥고 건조한 러시아에서 사모바르는 방안을 덥히는 난방
기구일 뿐 아니라 건조함을 막는 가습기이기도 하며 또한
뜨거운 차를 계속 마실 수 있는 tea server 의 역할을 한다.**

사모바르 (samovar)

러시아의 홍차는 '사모바르(samovar=자비관·自費罐)'가 러시아홍차 문화에서 떼어 놓을 수 없는 중요한 존재로 '혼자서 자동적으로 끓는 탕불기'를 뜻한다.



사모바르(samovar) 내부구조



사모바르가 있는 일상생활의 모습



러시아인들이 사모바르를 중시한 이유는 사모바르는 티 포트(tea-pot)가 아니고 탕불기였기에 차를 내기 위한 물을 끓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내를 따뜻하게 하는 난방(暖房) 역할도 했었다.

사모바르는 러시아의 가정에서 물을 끓이는 데 사용하는 주전자.

연료로는 주로 숯, 솔방울, 장작, 석탄 등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대부분 전기나 가스 제품으로 대체되고 있다.

연관식(煙管式) 보일러의 원리로 물을 끓이며, 위에서 물을
넣고 끓으면 바깥 아래쪽에 달려 있는 꼭지로 물을 따른다.

가열부는 보통 철제이고 외부는 은, 구리, 주석 등으로 만
든다. 상류가정에서는 은제로 된 것을 선조 대대로 물려받
아 사용하는데, 오늘날에는 골동품이나 예술품으로 취급되
는 것이 많다.

미국의 홍차문화

미국은 차로 인해서 독립을 쟁취한 나라 일뿐 아니라
홍차의 문화사를 이야기 할 때는 빼놓을 수 없는
3가지 발명품을 내놓은 나라이다.

① 일회용 tea bag. ② tea mix. ③ iced tea

밀크티는 영국홍차/레몬티는 러시아홍차/아이스티는 미국홍차
茶의 미국전파/

17세기 중엽 뉴암스텔르담(지금의 뉴욕)에
이주한 네델란드인에 의해서 전파.

1904년에 뉴욕의 한 차 가게에서 형꺇주머니에
찾잎을 넣어 샘플로 보내기 시작했다.

이것이 간편한 것이 인기를 끌어서 일회용
tea bag 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일회용으로 포장된 차를
차 주머니 (tea bag) 이라고 부르게 된 것이다.



티백은 오늘날 세계 150여 개국에서 소비되고 있으며
인스턴트 티 믹스(tea mix)는 그 질이 개량되어 앞으로
세계의 음다 습관을 변화시킬 가능성마저 보여주고 있다.



tea bag



tea mix

레몬티 - 러시아홍차

러시아에서는 홍차를 설탕 대신 잼이나 쿠키, 비스킷 등과 함께 먹는데, 이것을 러시안티라고 부른다.

홍차는 사모바르를 사용해서 진하게 우려낸 다음 물을 타서 마시며 여기에 잼 등을 곁들인다.



밀크티- 영국홍차

주로 진하게 우려낸 아쌔이나 실론티에
우유와 설탕을 타서 마신다.

홍차를 잔에 따르고 우유를 나중에 타는 것과
우유를 잔에 넣어 홍차를 따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아이스티- 미국홍차

홍차에 얼음을 타서
차게 마시는 차.



1904년 세인트루이스 국제
박람회에서 영국인 홍차 상인
이 전시 판매하던 차에 얼음
을 넣어 판매한 것이 시작이
되었다.

당시에는 냉장고가 아직 보급
되기 전이었으므로 획기적인
아이디어상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다.

인도 식으로
조리해서 마시는 홍차.



차이(chai)

시나몬(계피), 카르다몸, 클로브(정향) 등의 향신료를 홍차와 함께 우유에 넣어 손냄비로 끓여낸다.

자극적이고 강한 향이 있으며 맛이 달콤하다. 유약을 바르지 않은 토기로 만든 잔에 담아 마신다.

스리랑카의 차문화

- 인도양에 위치한 섬나라. 공식 이름은 '스리랑카 민주 사회주의 공화국'이다. 1948년 영국에서 독립하여 실론(Ceylon)이라 칭하기도 했다. 수도는 콜롬보(Colombo)이다.
- 1860년 스리랑카 홍차의 아버지라 불리는 스코틀랜드인 제임스 테일러가 캔디 근처의 룰레콘데라(Loollecondera) 다원에 아삼차의 씨앗을 심어 제대로 된 홍차를 재배 하였다.

세계 차 수출 1, 2위를 다투고 있는 스리랑카는
고급 홍차인 실론 티가 생산 되는 곳.

1824년 영국 장교 R. Bruce가 인도 아삼(Assam)의 사디아
(Sadiya)지방에서 차나무 발견 후 1834년에 '차 위원회'를
설립한 후 스리랑카에도 차나무를 옮겨 심었다.

스리랑카 차의 종류

- 1)하이 그론(high-grown)-누와라엘리야, 우바
- 누와라엘리야, 우바, 딤불라의 1200미터 이상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차들이 실론의 가장 좋은 차이며 높은 고도의 낮은 온도로 인해 차나무가 천천히 자라면서 차잎에 향을 농축하기 때문이다. 누와라엘리야는 꽃향기와 깔끔한 황금색 수색으로 가벼우면서도 농축된 맛에서 오는 부드럽고 우아한 민트 향이 특징이다.

2)미드 그론 티-딴불라

- 600~1200미터의 미드 그론(mid-grown) 지역인 캔디에서 생산되는
- 미드 그론 티는 향이 풍부하고 적당한 강도가 장점이다. 미드 그
- 룬의 대표인 딴불라는 실론차 중에서 가장 깊은 전통을 지녔으며
- 우리면 깨끗하고 강하고 분명한 향, 풍부한 풀 바디의 맛이다.

3)로 그론 티-

GALLE DISTRICT OP1,RATNAPURA 오렌지 페코
(OP)

- 루후나에서 생산되는 로 그론 티는 대체로 600미터 이하로
- 섬의 서남쪽 지역, 즉 라트나푸라로부터 갈레 사이에서 재배된다.
- 스리랑카의 생산량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며 섬세함이나 깔끔함과 같은 고지대 특유의 맛은 없지만 적당한 강도와 무게감으로 입안 가득 바디감을 주는 것이 매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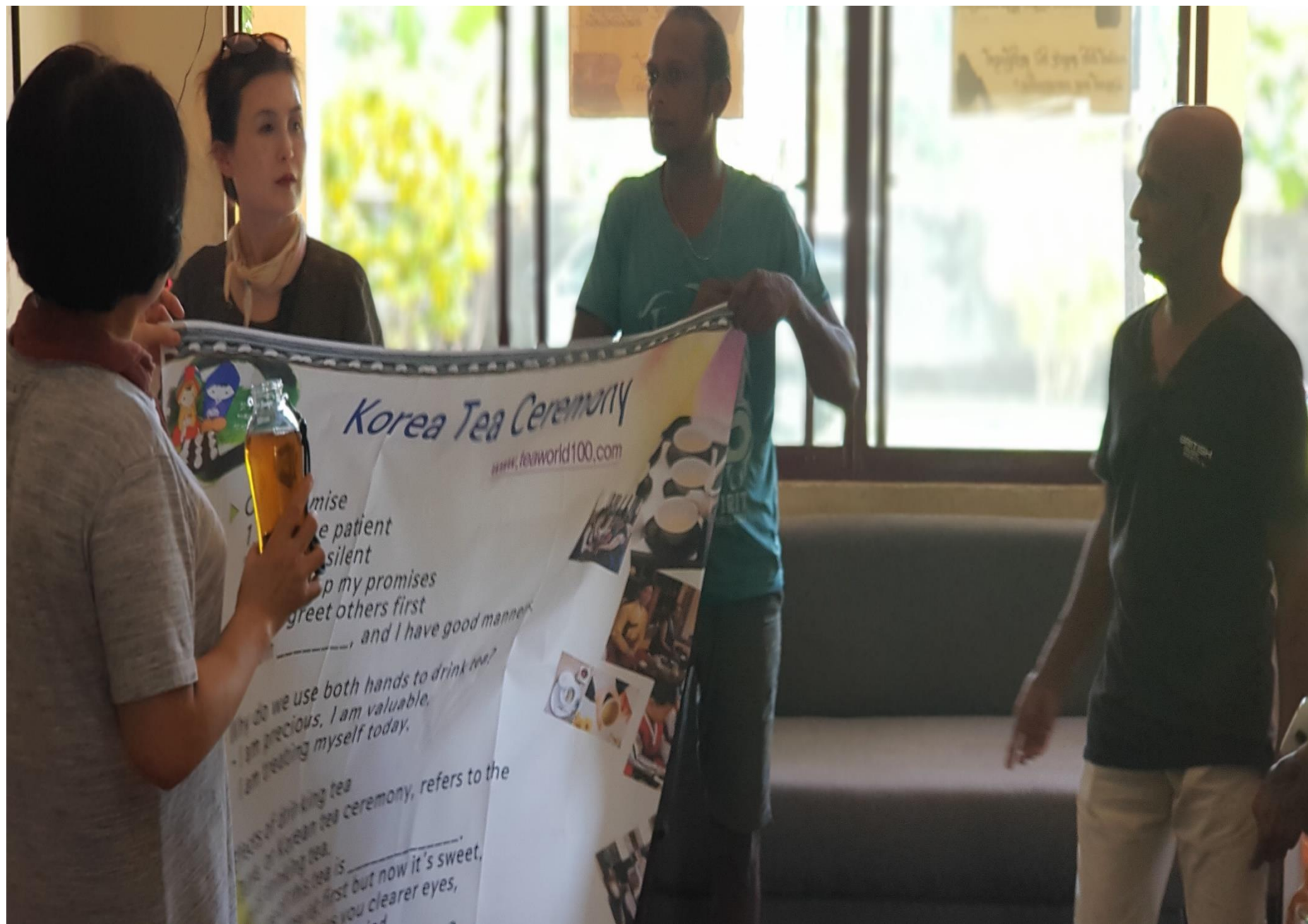












Korea Tea Ceremony

www.teaworld100.com

I promise
to be patient
silent
keep my promises
greet others first
and I have good manners

Why do we use both hands to drink tea?
- I am precious, I am valuable,
I am treating myself today.

Green or drinking tea
of Korean tea ceremony, refers to the
drinking tea is
first but now it's sweet,
you clearer eyes,

***Our Promise**

1. I will be patient
2. I will be silent
3. I will keep my promises
4. I will greet others first

I am _____, and I have good manners.

***Why do we use both hands to drink tea?**

- I am precious.
- I am valuable.
- I am treating myself today.

***Effects of drinking tea**

- Darye, or Korean tea ceremony, refers to the way of drinking tea.
- The name of this tea is _____.
- This tea is bitter at first but now it's sweet.
- Drinking this tea gives you clearer eyes, stronger teeth, and calm mind.
- What is name of the tea we drank today?

참고자료

차와 인류의 동행.조기정,이경희
다도인성교육.서은주.ucn